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 마음의 본체이고...”

<49> 명대(明代)의 양명학(陽明學)과 거사불교(1)

남송(南宋) 시기 주희(朱熹)에 의해 완성된 이학(理學)에 정면으로 도전한 이가 육구연(陸九淵)이다. 그는 주자학(朱子學)에 대해 ‘침상가옥(櫟床架屋)’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희가 ‘마음(心)’과 ‘이치(理)’를 두 가지로 본 것을 가리킨다. 육구연도 “우주를 포괄하는 하나의 이치일 뿐”(《상산전집(象山全集)》권12)이라고 하고, 이 이치는 “천하에 두루 가득 차 있어서 조금도 비거나 부족한 데가 없다”(권35)고 해 ‘이치’를 이른바 ‘본체(本體)’로서 인정하고 있음은 주희의 이학과 조금의 차별이 없다. 그러나 주희는 ‘이치’를 ‘성품(性)’과는 일치시키지 않[성즉리(性即理)], ‘마음’은 단지 인간의 몸을 주재하는 영명지각(靈明知覺)의 작용이 있는 인식주체이지, 만물과 도덕의 본체적인 의미는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육구연은 “만사만물이 마음에 있다”(권34)고 말했다. 이는 ‘마음’의 본체적 작용을 인정하고, 다시 ‘마음은 단지 이 하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 내 친구의 마음, 위로 1100년 성현의 마음, 아래로 다시 1100년 성현이 있으니 그 마음 또한 이와 같다’(권34)는 주장을 펼치고, ‘심즉리(心即理)’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것이 바로 ‘이학’과 ‘심학’이 나누는 결정적인 분기점이다. 이학이나 심

점차 ‘심학’으로 관심을 돌렸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왕수인(王守仁; 1472-1529)이다. 왕수인은 자(字)가 백안(伯安)이요, 절강(浙江)의 여요(餘姚) 출생으로 호가 양명(陽明)인데, 흔히 왕양명으로 칭한다. 비록 <거사전> 등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지만 왕양명은 오랜 기간 참선을 통해 조사선의 선리(禪理)와 다양한 교학을 탐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에 따라 왕양명은 ‘거사’라고 칭해도 결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왕양명이 제자들과의 토론을 모은 <전습록(傳習錄)>에는 자신의 학설이 불교로부터 왔음을 밝히는 내용이 상당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양지(良知)의 체(體)가 명경(明鏡)과 같이 밝아 티끌의 감춤 없이 맑고 마음 그대로 사물을 따라 형상을 보인다... 불가(佛家)에 일찍이 이 말이 있어 그릇되지 않다”, “선도 악도 헤아리지 않는 때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안다고 함은 부처님의 본래면목을 아직 알지 못한 자를 위해 시절한 방편이다. 본래면목은 곧 나의 성문(聖門)에서 이른바 양지이다”(《전습록》 권중) 등으로부터 그의 사상에 놓여 후한 불교, 특히 조사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왕양명은 육구연의 ‘심즉리(心即理)’를 계승해 ‘마음’을 ‘양지(良知)’로 승화시켰다. 왕양명은 ‘양



그림 · 김흥인

조사선의 새로운 경지 얻어 ‘용장의 깨달음’ 칭해 ‘심학’은 ‘치양지’의 학설에 이르러 대체적인 완성

학이 모두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육구연으로부터 시작된 심학은 조사선의 선사상에 가까웠다. 송대 발생한 이학과 심학은 격심한 논쟁을 통해 원대(元代)에는 “반드시 국가를 위해 울음이나 학자는 존중해 믿어 감히 의심함이 없게 하라”(《도원학고록(道園學古錄)》권39)는 것과 같이 정주(程朱) 이학이 주도권을 차지하게 됐고, 명대에 이르러 통치자가 민중의 사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하기 위해 “주자학을 하나의 종(宗)으로 삼아 학자로 하여금 오경·공맹의 서적이 아니면 읽지 못하게 하고, 염계(周敦頤), 낙민(陸九淵)의 학문이 아니면 강의하지 못하게”(《동림열전(東林列傳)》권2) 해, 점차 “주자는 옳고 육구연은 그르다(是非非陸)”는 설을 정문화시켰다. 그러나 명대 중기에 이르러서 이학의 맹점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많은 지식인들은

자’에 대해 “양지는 천리(天理)의 밝고 신명하게 깨닫는 곳이다. 양지는 곧 천리이다.”(권중), “네가 지니고 있는 그 양지야말로 너 자신의 준칙이 된다. 네 생각과 뜻이 미치지 바가 곧 울음(是)은 울음이고 그름(非)은 그름이라고 알아 사소한 속인수도 용납하지 않게 된다.”(권하) 등으로 설명했다. 이로부터 ‘양지’를 그대로 본체의 자리로 설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것이 절대적인 준칙으로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왕양명은 “양지는 곧 아직 밝히지 않은 가운데 있으며, 곧 밝아 크게 공경함이며 고요해 움직이지 않는 본체”(권중)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분명히 조사선에서 말하는 ‘자성(自性)·불성(佛性)’과 조금의 차별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왕양명의 학설에 대해 그의 후학인 류중주(劉宗周)는 “양명선생에 대해 사람들은 선(禪)에 가깝다고 한다. 즉, 옛날의 부처는 석가모니로서, 그것이 변해 오종선

(五宗禪; 爲仰·臨濟·曹洞·雲門·法眼의 禪宗五家)이 됐고, 다시 양명선(陽明禪)으로 변했음을 말한다”(《유자전서(劉子全書)》권19)라고 평했다. 이로부터 왕양명이 거의 공개적으로 조사선을 답습했음이 짐작된다. 왕양명은 35세에 병부주사(兵部主事)로 있을 때 환관 유근(劉瑾)의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아 귀주(貴州) 용장(龍場)으로 귀양을 가는데, 이 시기의 수많은 선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조사선에 심취해 새로운 경지를 얻게 된다. 이른바 ‘용장의 깨달음’으로 칭하는데, 이때의 깨달음은 바로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왕양명은 “물(物)의 이치는 내 마음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내 마음의 밖에서 물의 이치를 구하면 물의 이치는 없다.”, “사사를 물에서 내 마음의 양지에 이르고... 내 마음의 양지에 이르는 것만 알아 이르는 것이다. 사사물들이 모두 그 도리를 얻는다는 것은 격물(格物)이다”(《전습록》권중)라고 표현했다. 또, 스스로 “비로소 성인(聖人)의 도를 알아 내 성품에 자족(自足)한다. 사물에서 이치를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왕양명선생년보(王陽明先生年譜)》, <왕문성공전서(王文成公全書)》권32)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왕양명의 50세에 ‘양지’를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치양지(致良知)’의 학설로 귀결시켰다. 왕양명은 ‘치양지’를 대단히 중시했는데, 일찍이 “나는 평생 동안 단지 ‘치양지’ 세 자만을 강의했다”(《왕문성공

전서》권26)라고 하고, “치양지 세 자는 참으로 성문(聖門)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 “치양지는 학문의 큰 두뇌이고, 성인 가르침의 제일의(第一義)이다”(《전습록》권중)라고 했다. 이렇게 ‘치양지’를 지고 무상한 지위에 놓은 것은 “양지는 능히 어리석은 사람과 성인을 같게 하나, 다만 오직 성인만이 ‘양지에 이르고[致良知]’, 어리석은 사람은 능히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성인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뉘는 까닭”(《전습록》권중)이라고 해 ‘치양지’를 할 수 있고 없음에 따라 성인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치양지’의 수양방법은 선종의 ‘명심 견성(明心見性)’의 수행법과 대단히 비슷하다. 선종의 기본 사상 가운데 하나는 ‘불성(佛性)’은 본래 청정함대 다만 번뇌와 고뇌에 덮임으로 인해 스스로 나타날 수 없게 되지만, 만약 상(相)을 여의고 무념(無念)하고, 마음을 밝혀 성(性)을 본다면 [明心見性] 자신의 본래면목을 알 수 있고,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혜능의 <육조단경>에서는 하늘이 항상 푸르고 해와 달이 항상 밝은데, 다만 먹구름의 가림으로 인해 밝음을 얻을 수 없으므로 비유해 청정한 불성과 객진번뇌의 상호관계를 설명했다. 왕양명도 또한 “성인의 양지는 푸른 하늘에 떠있는 해와 같고, 현인의 양지는 구름 낀 하늘의 해와 같으며, 어리석은 사람의 양지는 음산한 날의 하늘에 떠있는 해와 같다”(《전습록》권하)고 설명했다. 이 두 가지는 사상이 서로 통할 뿐만 아니라 묘사한 용

어도 같다. 제자들과의 논의에서도 <단경>의 ‘본래 무일물(本來無一物)’의 사상이 ‘양지의 지극(至極)’과 합치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왕양명이 <단경>을 상당히 중시해 여러 차례 숙독했던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왕양명은 56세 때 광둥(廣東)·광서(廣西)의 묘족(苗族)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전하러 뒤 돌아오는 길에 병사했다. 왕양명이 출전하기 전 날에 남긴 사구결(四句訣)은 양명학의 진수를 논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 마음의 본체이고,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이 뜻의 움직이며,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이 양지이고,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이 격물(格物)이다(無善無惡是心之體, 有善有惡是意之動, 知善知惡是良知, 爲善去惡是格物).”(《전습록》권하) 육구연의 ‘심학’은 왕양명에 의해 ‘치양지’의 학설에 이르러 대체적인 완성을 보았기 때문에 후대에 ‘육양심학’, 혹은 ‘양명학’으로 칭한다. 이러한 ‘양명학’의 흥기는 명대에 쇠락해 가는 불교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왕양명이 세상을 떠난 후, 만력(萬曆) 연간(1573-1620)에 선후로 명대의 ‘사대고승(雲棲株宏·紫白眞可·慈山德清·溝盆智旭)’들이 출현하는 등 양명학과 관련된 명대의 거사불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계속)

■ 김진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공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공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공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로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깎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운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하시고 있지만 적정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애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경성에서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정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레아 역학입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중비법입니다. 책입장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니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 완성 (국내외의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강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증은 특혜있음)
-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추명사)

사단대한불교
법인사주명리연구학회

추명사 백운성수, 도영합창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